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9년 5월 6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인애 의원

“우이동 파인트리 사업 조속한 재개 촉구”

유인애 의원(수유2,3동 번1,2동)은 제 2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6년째 흉물로 방치된 북한산 파인트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우이동 파인트리 사업은 2012년 중순부터 공사가 중단돼 6년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라며 지난해 9월 경 삼정기업이 인수하여 ‘우이동유원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겨우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상황에서 서울시는 강북구청 및 삼정기업 등과 지난 7개월 동안 정상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4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아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계속되는 사업 지연으로 애꿎은 삼정기업만 지금까지 60억여원의



금융손실을 입고 있다. 이러다가 삼정기업의 사업포기로 인해 또다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사업자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지난 6년간 방치되어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아니라, 조속한 사업 추진”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이동유원지사업의 사업승인에 강북구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승목 의원

“강북구체육회에 분명한 책임 물어야 할 것”

서승목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제2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체육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북구의회 사상초유의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리고 강북구체육회의 다년간에 걸친 관행과 부정이 낱알이 밝혀지며 구청 감사결과 부정수급한 수당 600만원을 환수조치까지 했지만 강북구체육회는 일말의 반성 없이 구차한 변명과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허위사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적어 도리어 의원들을 향해 부정한 집단이라며 매도하고 구민들을 기만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30개가 넘는 산하 단체와 약 2만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우리구의 대표



체육단체이자 만형 격인 강북구체육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라며 “6억의 주민 혈세를 투명하고 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강북구체육회 스스로가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강북구체육회는 비겁한 변명과 책임 전가에 더 나아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 구청은 법률 자문을 받고 형사고발을 통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운섭 의원

“인수동 대우건설 부지 관련 면담 나서야”

조운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은 제22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구정질문에 이어 인수동 대우건설 부지 관련 문제를 다시 한번 지적했다.

조 의원은 “과거 대우건설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축구 전용구장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답변했지만 알아본 바 축구전용구장을 위해 용역비를 확보하여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보내려 했는데 안 받겠다 하여 못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오톱 부지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반박하고 “공원 및 공공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주민을 위한 숲 정원 및 힐링센터는 포함되어 있고 더 포함 시킬 수도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 귀 기울이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더욱이 대우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원 내에 축



구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고 강북구에서는 구 예산 및 유효부지가 없어 생활형SOC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공공 부지 만들어 주고 완성 된 가치는 5백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숲 정원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결정이 나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매입할 계획은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먼저 도시공원 및 공공부지 조성관련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먼저 숲 정원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관계자를 찾아서라도 면담을 해달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상관없다 라는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북구의회, 구정질문 이어 5분 자유발언 다양한 의견 개진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 3명의 의원들이 4월 30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강북구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의원 별로 정리했다.



우이동 파인트리 재개 위해 민간사업자 자율성 존중해야



▲ 유인에 강북구의원

유인에 의원은 우이동 파인트리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국립공원 자연경관 훼손과 인허가 과정 특혜 의혹으로 2012년 공사가 중단 된 우이동 파인트리가 특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시공사 부

도로 흙물로 방지됐다”며, “지난해 9월 ‘우이동유원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삼정기업이 인수하며 정상화 길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아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사업 지연으로 60억여 원의 금융손실을 입고 있

는 삼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할까 걱정된다”며, “민간사업에 과도한 개입은 사업 추진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 부담으로 돌아간다.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승인에 강북구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우건설 부지에 축구전용구장 건립 추진해야



▲ 조운섭 강북구의원

조운섭 의원은 구정질문에 이어 대우건설 부지와 관련한 축구전용구장 문제를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과거 대우건설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축구 전용구장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음에도 구청에서 받지 않겠다고 해서 서

울시에서 내려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유지라 용역비를 집행할 수 없었다는 구정질문 시 구청 측 답변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더욱이 대우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도 제안서를 갖고 면담하려고 해도 귀기

울이지 않는 구청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정말 한심스럽다”며, “도시공원 및 공공부지 조성 관련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되면 먼저 숲 정원 타당성 조사 용역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관계자를 찾아서라도 면담을 하길 꼭 부탁드린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6억 보조금 집행 강북구체육회 부정 업무 책임져야



▲ 서승목 강북구의원

서승목 의원은 강북구체육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며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강북구의 대책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구청 감사결과 부정수급 한 수당 600만원을 환수당한 강북구체육회가 일말의 반성도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

하며 도리어 강북구의회를 부정한 집단이라며 매도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1년에 서울시 4억, 강북구 2억 등 6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강북구체육회가 부정 업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

지 않고 있다”며, “비겁한 변명과 책임 전가에 더 나아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는 강북구체육회에 대해 구청은 법률자문을 받고 형사고발을 통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우이동 파인트리콘도 사업 재개 강력 촉구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먼저 우이동 파인트리 콘도와 관련해 “작년 8월, 박원순 시장께서는 삼양동 옥탑방 한달살이를 마치고 이후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지역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난해 9월 경 부산에 위치한 건설업체 삼정기업이 인수하여 ‘우이동유원지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겨우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우이동유원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2020년 준공

지난 4월 30일 강북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우이동 파인트리 콘도의 조속한 사업 재개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을 목표로 지난해 사업재개를 약속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강북구청 및 삼정기업 등과 지난 7개월 동안 정상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4차례회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아 아무런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한 정상화에 대한 서울시와 강북구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사업의 추진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고스란히 민간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 지난 6년간 방치되어 피해를 입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아니라, 조속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이동유원지사업의 사업승인에 강북구가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북구의회 서승목 의원 5분 자유발언

강북구체육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에 대해 책임 물어야



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서승목 의원은 “지난해 12월 강북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열리고 수당 부정수급과 가짜 견적서로 얼룩진 강북구체육회의 민낯이 드러났고 구청 감사결과 부정수급한 수당 600만원을 환수조치까지 했지만 강북구체육회는 지난 27일 토요일 있었던 견기대회에 참가한 체육동호인들에게 구차한 변명과 무책임함으로 일관하고 허위사실을 적어 강북구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하고 “강북구체

지난 4월 30일 강북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승목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강북구체육회의 잘못된 관행과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물어줄 것을

육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각 종목단체, 단위클럽의 회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보조금을 규정에서 벗어나 쓰고 착복해서는 안 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몰랐다’로 일관하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강북구체육회 스스로가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승목 의원은 끝으로 “의회 특위 조사와 구청 감사로 이미 체육회에 바로 잡을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강북구체육회는 비겁한 변명과 책임전가에 더 나아가 허위사실까지 유포하고 있다”며 구청은 법률 자문을 받고 형사고발을 통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강북구의회 조운섭 의원 5분 자유발언

축구장 조성위한 대우건설 부지 기부채납 수용 못하는 이유는?



지난 4월 30일 강북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운섭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대우건설의 부지(카르멜수녀원 뒤) 축구장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조운섭 의원은 먼저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 수 있다면 여·야를 떠나서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짚고 “과거 이성희(전)시의원이 문체부위원으로 있을 때 강북구 축구동호인들의 염원인 축구전용구장을 위해 용역비를 확보하여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보내려 했는데 안 받겠다 하여 못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비오름 부

지에 이화여대 기숙사 건축허가 관련 특혜를 줬다고 해서 서울시가 난처했다고 답변하였는데 인터넷 등으로 알아본바 답변 내용과 차이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 및 공공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박청장이 발언한 주민을 위한 숲 정원 및 힐링센터는 포함되어 있고 더 포함 시킬 수도 있는데 무슨 목적이 있어 귀 기울이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더욱이 대우 부지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원 내에 축구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고 강북구에서는 구 예산 및 유효부지가 없어 생활형SOC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공공부지 만들어 주고 완성된 가치는 5백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숲 정원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결정이 나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매입할 계획은 당연히 아닐 것으로 믿

는다. 제안서를 갖고 면담해 보려고 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구청장의 의도는 무엇인지?”물었다.

이어 “허광행위원장의 축구 전용구장 조성에 대한 질의·답변에 보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강북구에서 검토 대상부지를 국토교통부에서 매입했다고 하였고 강북구 생활형SOC사업은 부지매입비에 국비 지원이 되지 않고 유효 부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안에 축구전용구장 및 숲 정원 조성과 남은 유효 부지는 강북구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부지를 조성해서 기부하겠다고 한다. 먼저 도시공원 및 공공부지 조성관련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확인 되면 숲 정원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관계자를 찾아서 면담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